

# “경전선 순천도심 통과 안전사고 위험”

### “30분에 한 대꼴로 도심 지나 교통체증·철도 소음 시달려” 노관규시장, 철도계획 변경 요청 “우회 노선으로 추진해야”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순천시 제공〉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현재 5시간 이상 걸리는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 구간 단선 전철화사업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순천시의 의견청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져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하루 6회 운행하던 것이 하루 40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30분에 한 대꼴로 고속열차가 도심을 관통하게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순천 시내 10곳의 평면교차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은 철도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7m 높이의 고압 구조물이 생겨나 도심경관을 훼손하게 되고,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1930년 건설 이후 100년 만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조 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순천의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여당,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경전선이 도심 우회 노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경전선 우회 노선 변경을 건의했

다. 또 지난 19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 설득에 공동 대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순천시민들은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도심을 우회하거나 지하화하도록 변경해줄 것을 다각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완도군, 민생살리기 온 힘...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가뭄 제한 급수지역 3개월간 착한 임대인 재산세 100% 감면

완도군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하기로 하는 등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는다.

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해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가뭄으로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노하읍, 보길면)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등은 6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완도타워·완도청년센터·생활문화센터 카페 등의 공유 재산 임대료도 인하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비를 지원하고 8월부터 완도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민생 안정을 균형 운영의 최우선으로 두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곡성군, 지역 특산물 재료 밀키트 출시

### ‘깨비정식’ 등 캠핑장 배달

“캠핑장 갈때 음식 바리바리 챙겨가지 말고 밀키트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곡성군이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밀키트를 만들어 곡성 주요 캠핑장에 배달한다.

곡성군은 코로나19 이후 캠핑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맛 경쟁력을 갖춘 지역 음식점의 메뉴를 밀키트로 제작해 지역 내 캠핑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10개 음식점이 참여했다. 곡성군 홍보대사인 강레오 셰프의 컨설팅을 받아 인기 메뉴들을 밀키트 제품으로 구현했다. 참계탕에서부터 석곡흑돼지 석쇠구이, 능이담글탕, 토란탕, 곡성깨비정식까지 ‘곡성5미’를 편리하게 맛볼 수 있다. 또한 감자탕, 갈비탕, 해물 찜판구이, 수제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을 밀키트로 만날 수 있다. 특히 탕류는 별도의 용기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냄비에 담아냄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참여 음식점에서는 밀키트 제품을 곡성 주요 캠핑장 4개소(도림사오캠핑장, 청계동솔바람야영장, 꿈꾸는캠핑장, 청소년야영장)에 배달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밀키트를 이용하려면 캠핑장 입장일 전날까지 밀키트 출시 음식점에



사전 예약(유선) 및 입금을 완료하면 된다. 주문이 확인되면 해당 음식점에서는 캠핑장 입장 시각 전에 밀키트를 배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우리 군 대표 먹거리를 밀키트로 만든 만큼 캠핑객들에게 곡성의 맛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 대표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로를 다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 K-무비 광양서 촬영하면 뜬다

### ‘명량’ 이어 ‘한산’ 주촬영지 주목 ‘극한직업’·‘부산행’ 공간적 배경

오는 27일 개봉을 앞둔 김한민 감독의 영화 ‘한산’이 기대를 모으면서 이순신 3부작 중 가장 먼저 개봉했던 ‘명량’과 함께 주 촬영지 광양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2014년에 개봉한 ‘명량’은 광양에서 초대형 해전 세트를 제작하고 70% 이상을 광양에서 촬영해 176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 여전히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다. 광양항 해양공원에는 이순신 장군, 구루지마 등 영화 속 등장 인물, 촬영 현장 스틸컷, 주요 스토리 등이 포토존과 홍보판으로 기록돼 있다.

역대 박스오피스 2위에 등극한 ‘극한직업’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마약반 형사들의 범죄조직 소탕 촬영도 광양항에서 이뤄졌다.

마약반 5인방을 포함한 배우와 무슬림 100명이 육탄전을 벌인 대규모 액션 신에서 쉼없이 쏘아 맞히는 광양항 컨테이너들의 아우라는 관객들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됐다. 광양항은 석양이 붉게 물드는 곳이자 유려한 이순신대교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뷰포인트로, 한가로운 낭만을



광양이 최근 영화 ‘명량’, ‘극한직업’ 등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광양항 전경.

〈광양시 제공〉

즐거리는 젊은 세대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박스오피스 16위인 ‘택시운전사’에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검색대를 통과하는 장면은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촬영됐으며, 부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좁비와 사투를 벌인 ‘부산행’은 도이동 황길터널에서 촬영됐다.

또한 봄이 가장 먼저 오는 광양매화마을은 2002년 임권택 감독에게 간영화제 감독상을 안긴 ‘취화선’의 촬영지로도 이름이 높다.

그 밖에도 광양은 ‘기술자들’, ‘이웃사촌’, ‘강남 1970’ 등 흥행을 보증하는 촬영지로 꾸준히 각광받고 있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은 백운산, 섬진강, 광양항 등 수려한 자연과 풍부한 산업자원을 갖추고 있어 K-무비의 다채로운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다”며 “광양에 오시면 영화 속 광양을 찾아보는 깨알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장성군 ‘추석 농특산물 홍보물 수록’ 참여자 모집

### 농가·업체 대상...8월 배포 29일까지 읍·면 복지센터 접수

장성군이 오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제작하는 ‘농특산물·가공제품 홍보 책자’에 판매물품 수록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장성 생산 농산물·가공제품’,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해협(HACCP)’, ‘유기농·전통식품’ 등이다.

책자 수록을 희망하는 농가와 업체는 오는 29일

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은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자에 수록할 농산물과 제품을 엄선할 방침이다.

책자는 8월 중순께 장성역, 공영버스터미널, 관공서, 기업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온라인 카탈로그를 제작해 누리집에 함께 게시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고품질 장성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책자 발간을 기획했다”며 “농업인과 농식품 가공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 1522-9341